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고난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주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 속 전부를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시편 46편

다같이

말씀선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영상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Zoom으로 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제게 알려주시면 ID와 PW를 드립니다. 랩탑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음 주일(4/12)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특별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건축헌금은 연기되었습니다.
4. **성금요일예배(4/10)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명의삶 공부를 영상으로 재개합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주일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니엘 금식기도가 4월 1일 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전달되는 기도제목으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701,972

## 고난주간입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교회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기는 전대미문 혹은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주정부, 연방정부 할 것 없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두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처방안을 정확히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을 우리는 모이지도 못한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합니다. 장비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연락을 위해 목자목녀들과 목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배당 건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듣기로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4월 28일까지 공사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주일예배도 모일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회는 담당 교역자를 제외하고 2분만 더 참석해서 일주일간 9명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합니다. 영적 나태함을 배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울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